

외국 출신 노동력 비율 27년 만에 최고치



▲ 캘리포니아 산 호아킨 밸리 지역 농장에서 작업 중인 남미 출신 노동자들. 사진=shutterstock

미국에서 외국 출신 노동력의 비율이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미국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외국에서 출생한 노동자의 비율이 2021년 17.4%에서 지난해 18.1%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996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고용됐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외국 출신 노동자의 수는 2천980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180만 명 증가했다. 지난해 미국의 전체 노동력은 약 1억6천400만 명으로 추산됐다.

미국 고용시장에서 외국 출신 노동자의 진출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기간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 은퇴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어있는 자리를 채울 만큼 미국의 인구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 출신 노동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의 16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중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날 발표된 노동부의 통계에서 외국 출신 노동자로 분류된 수치는 체류 자격이나 노동 허가 소지 여부 등은 따지지 않고, 외국 출생 여부만을 확인해 통계를 냈다.

“뉴욕, 해마다 2mm씩 침하” ...100만 개 고층 빌딩 탕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2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뉴욕포스트는 최근 미국지질조사국(USGS) 소속 지질학자인 톰 파슨스가 이끄는 연구팀이 뉴욕시가 해마다 1~2mm씩 가라앉고 있으며, 특히 맨해튼 남부 등 일부 지역이 가라앉는 속도는 약 2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침하의 원인으로 100만 개 동에 이르는 고층 건물이 지적됐다. 연구팀이 추산한 고층 건물 100만 개 동 무게는 약 7억7천만 t으로 에펠탑 7만 개, 코끼리 1억4천만



▲ 뉴욕의 고층 빌딩들 모습. 사진=shutterstock

마리 무게에 해당한다.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을 포함한 뉴욕 주요 고층 건물은 단단한 암반 위에 세워졌지만, 일부 빌딩은 모래와 점토가 섞인 지반 위에 건설돼 있어 침하 속도를 높인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도 영향을 주고 있다.

연구팀은 1950년 이후 뉴욕시 주변 해수면은 약 22cm 상승했으며 이는 허리케인과 결합해 향후 대규모 홍수가 지금보다 4배 이상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및 전 세계 해안도시에서 침하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며 세계 전체가 침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10명 중 8명 재택 근무 ... 일자리 최우선 고려 요인은 임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미국에서 재택근무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임금만 높다면 사무실 근무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미국의 18세에서 64세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팬데믹 이후 전면 재택근무 비중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재택근무(38%)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재택근무 비율은 78%에 달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19%만이 전면 재택근무 상태였고, 60%는 전면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재택근무 중인 노동자에게 '얼마나 자주 재택근



▲ 재택근무 중인 사무직 근로자. 사진=shutterstock

무를 하고 싶느냐'고 물은 결과 전체의 37%는 '항상'이라고 답했고, '대부분 시간'이라는 응답도 35%에 이르렀다. '어느 정도'라는 답변은 23%였으며, '거의 하지 않겠다'는 견해는 5%에 불과했다.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의 45%가 임금을 꼽았고, 좋은 상사라는 답변이 14%로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0%는 출근을 하더라도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직장을 택하겠다고 했고, 재택근무가 능자역시도 65%가 고임금 일자리에 손을 들었다.

대부분 응답자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즐겁다'는 답변이 25%, '어느 정도 즐겁다'는 답변이 57%에 달했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